



무슬림의 명절 이드(Eid)에 진행한 방역용품 나눔.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합니다!

2020년 상반기 통합호

이 땅의 사람들

זראה ישבא Am-ha' aretz

뉴스를 보고 들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커져갑니다.
곤한 이웃들의 힘겨움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숫자로만 기억되고마는 술한 죽음의 소식들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럼에도 주변 곳곳에서 불쑥 고개 들며 자라나는 희망을 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숨쉬기 같은 일입니다.
항상 기쁨과 격려로 그 일을 함께 해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좋은아침병원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희망나눔사업을 통해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과 함께 합니다.

▼이주민 아동을 위한 유치원 차량 기증식



척추·관절에

좋은아침병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44 ☎ 031.566.1000

진료시간안내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

Contents

- 04 함께 가는 길 I | '평화'를 나누는 집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06 함께 가는 길 II | '살롬'의 집에 바란다 - 유진룡 (전)문체부장관
- 07 여는 글 | '살롬'의 날개 - 이정호(콜롬비아) 신부
- 08 함께 가는 길 III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 문경희 도의원
- 09 함께 가는 길 IV | 경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조희정 교수
- 10 청다말 시즌4 | 한국-방글라데시 국제협력캠프
- 18 청다말 시즌5 | 다이.노. 스쿨
- 20 함께 가는 길 V | 좋은 친구들
- 21 살롬 희망 학교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살롬 희망 학교"
- 22 영화, 그리고 이주민 | 자유인 '미누'를 그리며 - 이 영(이삭) 신부
- 24 KBFS에서 온 편지 | We are neighbors 우리는 이웃입니다 - KBFS
- 26 살롬 희망 나눔 I |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다.
- 28 살롬 희망 나눔 II | 통 큰 나눔, 냉동생닭 6,000마리!
- 29 살롬 꿈나무 | "선생님 절반이 뭐예요?" - 자원활동가 노은주
- 30 사람들 이야기 I | KBFS 부회장 "자한길 알럼"
- 31 사람들 이야기 II | 살롬 희망봉사단 "우마르 임란"
- 32 함께 가는 길 VI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양주행복도시락(주) | 리더라면 正租 처럼
- 34 후원해주신 분들

이주민연대 "살롬의 집" 소식지 <이 땅의 사람들>

발행인 이정호(콜롬비아 신부)

발행처 성공회 이주민연대 살롬의 집

주소 12036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4, 3층

TEL 031-571-2005 FAX 031-527-5340

페이스북 www.facebook.com/kmfsSHALOMHOUSE

사진 김용대 디자인 BLACKPEPPER D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통일부 장관, 성공회 사제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사랑, 꿈, 희망”을
함께 만들고 나누고
기뻐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평화’를 나누는 집

남양주 마석을 가려면 마치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터널을 지나면 바로 내리막길이고 이 내리막 끄트머리에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언덕을 다 올라가면 바로 “성생원”이라는 특별한 이름의 마을이 열립니다.

지금은 가구공장과 가구매장으로 가득해서 큰 가구 시장이 되었지만 70년 전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는 그야말로 슬픔과 아픔과 때로는 절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에 대한성공회와 영국성공회 선교사들은 힘을 모아 슬픈 역사와 함께 내일이 없었던 그곳에 “성생원(聖生園)”을 열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외로운 갈 곳 없었던 사람들과 “거룩한 생명”을 함께 이어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 초 이곳에는 말도 문화도 통하지 않았던 필리핀 사람들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이 먼 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항상 쫓기며, 억울하고 혹독한 노동 상황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견디어야 했습니다. 약속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공구를 다루다가 손이 잘려나가고, 경찰과 이민국 관리들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별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의 희망도 내일의 꿈도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살름”이 절실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살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호 신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들에게 병



원 치료라도 받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민국을 비롯하여 당국을 설득하면서 “불법체류”的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일인이역, 일인삼역을 한 그의 열정은 교회와 남양주시 당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석 마을 입구에 “샬롬의 집”을 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샬롬”은 “평화”라는 말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결코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위한 “샬롬의 집”이 아닙니다. 누구나 꿈꾸는 그 “평화”를 이곳에서 함께 나누자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 아니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사랑, 꿈, 희망”을 함께 만들고 나누고 기뻐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연예인도, 정치인도, 학자도, 성직자도, 언론인도 그리고 기업가들도 이곳을 찾아와서 “자신의 평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함께 나누며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평화는, 그 “샬롬”은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났고 절망 속에서 더 힘을 얻었으며 슬픔과 아픔 속에서 더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평화는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공량 시인은 “삶에 지쳐 세상 끝에 닿았다 생각되더라

도/ 멈추지 말라고 멈추지는 말라고/ 흐르는 바람이 내게 말했습니다.”라고 그의 “멈추지 말라고”라는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마음에는 결코 “내일은 오늘이 남긴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은 모든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먼 길입니다.”라고 시를 맺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샬롬의 집”은 “바람”이었으며, 이 집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내일”이었습니다.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내일”을 만들어 가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무리 절망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문화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의 희미한 “평화”를 나누면서 오늘을 이겨왔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고 희망의 날이며 결코 오늘의 반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샬롬”을 “내일”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내일이 곧 평화입니다.

‘샬롬의 집’에 바란다.

후원자 유진룡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샬롬의 집’에 무엇이든 바라기 전에, 먼저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해 나가고 계신 이정호신부님을 비롯한 ‘샬롬의 집’ 근무자와 봉사자 모든 분들께 감탄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터전이 되었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예전과 같이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갖추기까지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근대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벌였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빙곤에서 벗어나 소위 ‘잘 사는 나라’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절대 아니지요.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고, 폐허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원조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베트남, 중동지역 등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일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엔 해마다 보릿고개를 겪으며 굶주렸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K-pop, K 방역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꿈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많은 물질적 정신적 배려와 지원을 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 출신 이주민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 나라에서 온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정당한 대우조차 하지 않는 사례들을 보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국인의 생명과 자유, 복지와 문화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삶도 역시

‘샬롬의 집’의 여러 활동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정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기대합니다.

소중합니다.

‘샬롬의 집’이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그분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달래고 회복시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상담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언어, 법과 행정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해 주며, 구멍 나 있는 복지망을 선한 마음을 지닌 자원봉사자들이 메워주도록 연결해 주는 적극적인 역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몇 차례 행사에 참석하면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나라별 공동체 활동들도 보다 활성화되어 서로 마음의 의지가 되고 한국문화를 다양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저는 ‘샬롬의 집’의 여러 활동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정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국적과 종교, 피부색에 상관없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귀중하다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단일한 것보다 다양한 것이 더욱 가치가 있으며,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마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사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롬'의 날개를
활짝 펼 것이다.

'살롬'의 날개

이정호(콜롬바) 신부

『이주민연대 '살롬의 집'』 대표, 성공회 사제

코로나19는 참으로 집요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있다. 무섭다.

'살롬의 집'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하지만 이주민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이다. 재난지원금은 커녕, 방역용품을 비롯한 공적지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으려 해도 돈부터 요구 받는다. 이러면서도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고 무사하기를 꿈꾸는 건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요사이 심경이 좀 복잡해서 과격하게 해 본 소리다.

'살롬의 집'은 30년 동안 여러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어 왔지만, 곤한 이웃들을 지원한다는 본류를 결코 놓지 않고 지켜왔다.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고마운 사람들, 열정적인 활동가들, 이주민을 비롯한 아프고 곤하고 힘겨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쓰자고 들면 그야말로 대장정의 서사시 한 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 생략하고 작년 6월 1일, 새로운 임지로 온 이야기부터 해보고 싶다.

참 힘들었다. 갑자기 내팽개쳐진 것 같았지만, 하느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 같아 마음을 추스르다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다.

그 와중에 고마운 분들의 지원 덕분에 작년 한 해 열심히 준비과정을 거쳐 "청다말 시즌4, 한국-방글라데시 국제협력캠프"를 1월 6일부터 17일 사이에 다녀왔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이름 모를 먼 나라 모래섬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부동켜안고 회망을 나눈 일들은 그야말로 감동과 흥분 그 자체였다. 그리고 또 다른 터전을 꿈꾸다 집요하고 끈질긴 코로나19라는 놈을 만났다. 주저하지 않고 만 장의 마스크와 또 다른 방역용품, 생필품을 들고 광릉내, 팔야리, 진벌리, 부평리, 금곡리, 양지리, 연평리, 마석 등 이주민들이 있을 만한 곳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당신들이 무사해야 대한민국이 무사하다!'

새롭게 한국어교실을 열었고, '청다말 시즌5'를 준비했으며 지금도 또 다른 희망을 심고 또 나누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롬'의 날개를 활짝 펼 것이다.

그동안 이 일에 힘을 실어준 모든 후원자, 그리고 교우님들, 봉사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2019년 6월 1일부터 또 다른 꿈을 품고 새롭게 날개를 펼친 『이주민연대 '살롬의 집'』이 세상 곳곳에 희망을 만들 것이다. 휘릭 1년이 지나고 또 다른 희망을 만들면서 벼락 소리 질러 기도한다.

하느님!

우리 곁에 계셔서 "살롬"의 세상 주소서. 많이 부족하고 힘겨워 떠는 우리 곁의 곤한 이웃에게 소망 주소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문경희 의원

경기도의회 부의장



존경하는 이정호 신부님과 '샬롬의 집'에서 이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역사와 현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저 역시 작은 힘이나마 돋기 위해 항상 응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라는 따뜻한 말의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에, 해마다 열리는 '청다말-국제협력캠프'에도 매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캠프에 함께 할 기회는 없었지만, 대신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 마음을 다해왔습니다.

한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체류외국인이 있고 이 중 1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귀국하면 이들은 한국제품의 소비자요, 홍보대사요, 한국과 외교·통상·무역·교육·문화·체육·종교 등 다방면에서 브리지 역할을 하는 인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국제외교 및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국이 진정한 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치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에서 하고 있는 체류이주민 지원, 귀환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은 결국 그들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다문화, 이주배경 학생도 매해 2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내다보는 면밀한 대책과, 이를 위한 조례

**세밀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저도 '샬롬의 집'과
함께 가겠습니다.**

개정 등 꾸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는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감수성 모두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기에 앞서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배우는 교육과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샬롬의 집'이 수년간 진행해 온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이주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다문화 교육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합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동등한 개별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세계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 공정한 교육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일선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 교육을 맡아 주시는 여러분들이 더 힘낼 수 있도록 양적, 질적으로 세밀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저도 '샬롬의 집'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경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조희정 교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클



1. 예전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목사님을 만났다. 예수가 남긴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왜 그렇게도 동성애자를 증오하시는 거냐 여쭤보니, 사랑과 분별은 다르고 사람이 아닌 죄악을 미워하는 거라 하셨다. 그럼 그렇지, 목사님이 동성애 '자'를 미워할 리 없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이슈가 폐거리 싸움처럼 불불을 때마다 그분이 떠오른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과 '분별'의 경계, '사람'과 '죄악'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잘 모르겠다.

2. 몇 년 전 한 방송국에서 일할 때다. 막내 작가를 새로 뽑았는데 자리가 없었다. 마침 프린터 뒤의 작은 자리가 비어있길래 프린터를 옮기고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 난리가 났다. 한 PD가 누가 이 자리에 감히 '사람'을 앉혔느냐며 거품을 물었다. 당장 원위치시켜야 한단다.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왔던 생경한 단어. "이곳은 '정규직 존(zone)'이에요." 정규직 존… 그래도 시시한 농담 따위는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일로 하루아침에 철천지원수가 될 정도로 다퉜다. 결국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막내 작가는 사무실 자리 하나를 차지했지만 프린터님을 대체하진 못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비정규직 PD가 앉아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뿐 아니라 PD와 작가 사이에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걸까. 치열하게 싸워가며 그녀와 내가 각각 지키려던 건 무엇이었을까. 아주 가끔씩 그 면상을 마주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듈다.

3. "언니, 도와줘!" 몇 년 만에 이나에게 카톡이 왔다. 이나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20여 년 전에 귀화했다. 우리나라가 좋았고 한국인 남성을 만나 예쁜 딸도 낳고 러시아어, 영어에 한국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이질감이 전혀 없다. 파란 눈이지만 우리나라 커뮤니티와 문화에 완벽히 적응한, 그냥 한국인이다. 그동안 러시아에 사는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손녀를 돌보러 드나드셨는데 코로나 사태로 비자가 만료되어 밭이 묵여버리신 모양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만 천 단위가 나왔단다. '불법체류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것. 현행법상 외국 국적의 장인, 장모, 시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여행비자 또는 만 7세 미만 아이 보육을 위한 단기 초청 비자만 가능한데, 이들을 초청해도 3개월 후 다시 출국해야 하고 또다시 초청해야 하는 출국-초청의 악순환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고령의 몸으로 복잡한 초청 절차, 입국 절차, 항공편 탑승 등의 절차를 겪어야 겨우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있고 그나마도 짧은 몇 달 동안만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그게 왜 문제인지 여기서도 법리와 법감정이 충돌한다. 경계가 있다. 며칠 전 연락을 해보니 다행히 건강보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비자 문제는 여전하단다. 이나의 입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가슴 한편이 쿵 내려앉았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지금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가 되는 압록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한다. 경계에서 연암 박지원이 던진 질문 '그대, 길을 아는가.' 경계의 도시 단동을 지나 열하일기의 명문장이 탄생한 요동별, 시대를 뛰어넘는 이별의 슬픔을 간직한 심양, 조선시대 선비들이 장관으로 꼽았던 북진묘까지. 연암은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았다. 분별을 위해 세워 놓은 경계를 뛰어넘은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랑은 경계에서 피어나는 것도 같다.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10일간의 여정”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청다말)”는 2012년 지역사회 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다문화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방글라데시 귀환 이주민 NGO인 KBFS와 협력하여 “한국-방글라데시 국제협력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청다말”은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 참가자들이 거쳐 간 “살룸의 집”的 대표 사업입니다.

청다말 시즌4 | 2020 한국-방글라데시 국제협력캠프

사업 대상 서울시 & 경기도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인원 총 32명(청소년 15명, 성인 8명, 스텝 9명)

사업 기간 2019년 10월~2020년 2월

캠프 기간 2020년 1월 7일~1월 16일

활동 지역 방글라데시(동기바리 → 로호정 → 도하르 → 다카)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요 활동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 한국-방글라데시 친교의 날 / 의료 및 생필품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공동체 활동) / 미용봉사 / 방글라데시 행복도시락 나눔 등

빗속을 뚫고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우여곡절 끝에 KBFS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미용봉사와 문화교류활동 등을 준비하며, 낯설고 불편한 환경과 생소한 음식에 어느

새 적응해 갑니다. 현지 학생들과 청다말 단원들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와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은 엄청난 인기와 환호 속에 현지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 캠프 1일차 |

1월 7일 오전 인천공항 이동.
인천-말레이시아로 이동 후 1박



| 캠프 2일차 |

1월 8일 방글라데시 도착. 다카 > 동기바리 이동.
BPS 사무소 방문, 현지음식 체험 등



| 캠프 3일차 |

1월 9일 통기바리 지역. 한방 명랑운동회 진행.

KBFS 멤버와 교류, 후원물품 기증식 등



| 캠프 4일차 |

1월 10일 로호정 지역.

모래섬 학교 건립식, ALO 멤버와 교류, 풍등 날리기 등



로호정 모래섬마을에 예쁜 학교도 지었습니다.

'샬롬의 집'과 KBFS, ALO(로호정 NGO)가 힘을 모아 2018년부터 무료학교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학교 건립으로 인해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감소될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꾸준히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 캠프 6일차 |

1월 12일 도하르 지역. 무사복귀 기원 예배.

휠체어 기증식, SAMS-92 사무실 방문 등



| 캠프 5일차 |

1월 11일 도하르 지역.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진행, 미용봉사 등



| 캠프 7일차 |

1월 13일 도하르 > 다카 이동.

문화교류 프로그램, 현지가정 방문, 소감 나눔 등



| 캠프 8일차 |

1월 14일 다카 > 말레이시아 이동.
촛불의식, 둘링페이퍼, 말레이시아 이동 후 숙박 등



| 캠프 9-10일차 |

1월 15일 말레이시아 > 16일 인천공항 도착.
말레이시아 성공회 세인트메리 성당 외 주요 관광지 투어, 귀국



2016년 시즌1부터 2020년 1월 시즌4까지의 캠프 활동을 되돌아보면, 모든 참가자들은 분명 “청다말”的 경험을 토대로 부쩍 성장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방황을 끝내는 계기가 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각자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간단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 대등함, 평등함, 동등함의 이치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이 많기에 더 많이 나누고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의 이해”를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힘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며 그들의 무지개빛 꿈을 응원하는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10일간의 여정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캠프가 되도록 마음 모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청다말 시즌4 이모저모

Photograph by KIM YONG DAE

캠프 전 기간 동안 함께하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멋진 사진으로 담아주신
사진작가 김용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돈노봇!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조민정
청소년참가자

작년 11월, 나는 평소처럼 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 갔다. 그런데, 선생님이 문득 나에게 이 캠프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며 추천을 해주셨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청다말 방글라데시 캠프에 지원하였다. 처음엔 크게 긴장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출발 당일에 엄마가 잘 갔다 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내가 정말 방글라데시에 가는구나' 하고 실감이 났다.

출발하기 전, 방글라데시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방글라데시 인구의 86.6%가 무슬림, 즉 이슬람교도라는 사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한국에선 이슬람교가 생소해, 이 종교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어 흥미로웠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경제적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한다. 그 이유는 방글라데

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만족감이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지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자 현지 스텝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신기했다. 학교에 들을 때마다 우리를 환영해주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있어 고마웠고, 우리를 반겨 주기 위해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조금 미안하기도 했다.

내가 봉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대로 접한 건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늘 시간을 채우라고 하던 봉사였다. 그래서 그런지 봉사를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





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돋고 싶다는 마음이 크지 않아도, 나의 작은 진심이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상대방은 내 마음이 작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크게 고마워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내가 봉사에 대해 고민했었던 시간이 아까웠다.

내가 가서 한 봉사활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보다는, 현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방글라데시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던 활동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현지 사람들을 더 많이 접한 것 같고, 아이들과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 어울렸던 시간이 많았다. 우리가 기쁠 때나 힘들 때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돌아온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했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다시 기회가 되어 방글라데시에 가게 된다면 우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현지 스텝 분들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고, 한국 그리고 KBFS와 관련된 이야기도 더 알고 싶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대해서, 현지 사람들에 대해서 배운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나, 서로 대화하면서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더없이 좋았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또 나의 가치관이 직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과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떠한 방법이든 계속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위해 힘써주신 선생님들, 현지 스텝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고, 캠프를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나와 같이 지내며, 많이 도와준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내가 돋고 싶다는
마음이 크지 않아도,
나의 작은 진심이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상대방은
내 마음이 작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크게 고마워했던 것 같다.

시골학교의 여학생 화장실

팀닥터 박종철 교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번 방글라데시 일정 동안 틈틈이 여리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 뛰어노는 프로그램을 위해 또는 우연히 방문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학교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학생 화장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대학 이전까지 5년의 초등교육, 5년의 고등교육, 그리고 2년의 전문교육(college) 총 12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문한 곳마다 여학생들의 수가 많아서 다른 저소득국가 특히 무슬림국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개 초경 이후 생리 대부분이나 학교 내 생리대 교체가 어려워 학교교육을 포기하고 조기 결혼을 하는 경우가 그런 나라들에서는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국가에서 사춘기 여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이탈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겠지만 그 못지않게 물리적 환경으로는 지속가능한 생리대의 보급과 학교 내 월경 친화적 화장실 조성이 꼽힙니다. 같은 문화권인 인도, 네팔, 파키스탄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빈곤층에 대한 화장실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상 배변(open defecation)이 일상화된 이웃 나라들과 매우 다른 사회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학교 내 식수위생 개선에 대한 보건학 강의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런 상황의 이유가 궁금했고 이번 방글라데시 방문 동안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moderate & liberal'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원리에 천착하지 않고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기독교와 분쟁 없이 공존하고 각자의 종교 기념일에는 음식을 서로 나누고 함께 축하해준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의식이 주변 다른
무슬림 아시아국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지난 12년 동안 두 명의 여성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어 왔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다니다 보면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성정치인들도 적잖게 볼 수 있어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의식이 주변 다른 무슬림 아시아국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의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정을 함께한 KBFS 단체의 회원들 역시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을 경험한 후 개인의 영달보다는 서로 연대하여 다른 사회적 빈곤층을 돋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들과 학교 내 여학생 화장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건학적 의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요청으로 한국의 보건대학원에서 강의하던 School Wash 운동을 그들에게도 강의할 수 있었고 그들은 내용을 유심히 듣고 중간중간 서로 열심히 토론하기도 하고 여러 질문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아시아 무슬림 국가들의 화장실문화에 대해 평소 제가 궁금해 하던 것들을 역으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여학생 화장실은 시골학교의 경우에도 공간의 크기와 외부와의 차단성, 그리고 물이용의 용이성 등에서 남학생화장실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서 그들의 성인지 수준을 단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골학교의 경우 적잖은 곳이 수동식펌프였고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KBFS 멤버들과 제가 모은 사진들을 통해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고, 그들은 시골 학교의 여학생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문화교류캠프에 팀닥터로 따라와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까지 함께하게 되어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한 일정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주변 무슬림 국가와 다른 길을 가지고 있는 방글라데시가 급속한 산업 발전과 개발의 혼란 속에서도 부디 빈곤한 사회약자들과 특히 여성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 민감하게 키워가기를 응원해 봅니다.



P.S.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한국에서 그들을 대변해 온 성공회 이정호 신부님
덕분에 청다말 캠프에 2년 연속 참여할 수 있었고,
소중한 방글라데시 KBFS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 신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갈 수 있을까? 가고 싶다!’

지난 2012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한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 ‘2020년 청다말 시즌5’는 〈다양성〉 〈이주민〉 〈노동자〉의 세 가지 열쇳말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이.노.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만, 상반기 동안 진행된 세 차례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보내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열정에 힘입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에 열린 예비모임은 호평동 “우리동네청년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즌4 국제협력캠프 참가자 등 ‘청다말’에 관심을 가진 여러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다말의 지난 활동과 앞으로 진행될 “다.이.노.스쿨”的 주요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예비모임 준비에는 ‘행하자청년공동체’ 박윤지 대표님과 ‘우리동네청년연구소’ 안인환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6월에는 연간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청소년들의 마음열기,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이해”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이정은 강사님이 수고해 주셨고, 청소년들은 “이주민 방역용품 나눔”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7월에는 남양주 마석의 모란공원민주열사묘역과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를 탐방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주민 자원봉사자 “살롱 희망 봉사단”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故)노회찬 의원의 2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김용균, 문송면 등 노동열사들의 묘역을 탐방하고 추모하며 현장강의를 듣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후, 열사들의 묘역을 참배중이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만나, 모란공원민주열사묘역의 의미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열사들의 뜻과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여름 캠프를, 9월과 10월에는 이주민예술제와 어울림 한마당 등의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며, 문화다양성과 이주노동자에 대해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청소년들의 꿈을 함께 길러갈 것입니다.

청다말 시즌5-다.이.노.스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준 청소년들에게는 다음 번 국제협력캠프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도 드립니다.

“‘다.이.노.스쿨’에 함께 할 청소년들과, 스텝·자원봉사자들을 항상 환영합니다!”

“다.이.노.스쿨”에 함께 할 청소년들과, 스텝·자원봉사자들을 항상 환영합니다!”

참가자 모집 등!

- ▷ 참가비용 : 무료
- ▷ 활동지역 : 남양주 및 경기도
- ▷ 일정기간 : 2020년 6~12월, 월 1회(토)
- ▷ 신청자격 : 13~18세 경기도 청소년 누구나
[중고생 및 학교 및 청소년 모두]
- ▷ 신청방법 : 전화/이메일 문의, 방문 및 온라인 신청서 접수
hannurimc@gmail.com

주요 프로그램

- 마음열기 활동 / 문화다양성의 이해 / 마석 모란공원 묘역 탐방 등 봉사활동
- 이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 다른 나라 음식과 공연 체험
- 여름캠프 여행 → 이주민밴드 공연, 전문기행로 강연, 문화관광지 탐방 등

* 주요 프로그램 내용 중 봉사활동시간은 1365 자원봉사 실적에 반영됩니다.
* 우수 활동자를 대상으로 청다말 국제협력캠프 봉사단원을 우선 선발합니다.

이주민연대 봉준그룹 **한누리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10-2, 3층 | 문의 031-571-2005

BE A

좋은 친구들
Be a good friend

후원문의 02-6261-0613

"전쟁과 재해의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나누입니다."

좋은친구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C빌딩 501호
TEL 02-6261-0613
FAX 02-6261-0611
E-mail koreapeace@hanmail.net
www.speace.org
www.g-f.kr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9-92504(예금주: 좋은친구들)
후원문의
02-6261-0613

함께하는 단체

재단법인
남북평화재단

비봉평화재단

이주민연대
세계평화연대

사단법인 젊은농촌살리기 운동본부



GOOD FRIEND

전쟁과 재해의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나누입니다.

재단법인
남북평화재단국제친선
세계평화연대

비봉평화재단

사단법인 젊은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친구가 되어 주세요, Be a Good Friend

재난지역 어린이 긴급구호 및 부상장애 이주민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긴급구호
- 방글라데시 행복도시락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
- '부상장애 이주민들' 불의의 사고로 귀환한 이주민 지원사업



재일동포유치원어린이 지원사업

최근 일본정부는 재일동포고등학교에 이어서
유치원까지 교육보조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국내 저소득 빈곤 계층지원

국내 어린이들을 위해 먹거리, 의약품, 의료지원,
학용품, 도서, 방한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농촌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진행중입니다.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빵. 우유. 분유"



MILK

사랑의 우유브랜드

우유(200ml)

360,240팩

초코분유(800g)

13,716봉

진지분유(20kg)

1,992포

밀가루(20kg)

20,000포

- 북한 전체 인구 중 4분의 1이 저체중이며 3분의 1이 저생장 상태

- 북한 영유아의 키 성장 속도는 남한보다 4~18배 이상 낮음
- 아기를 낳을 여성들 역시 남한 여성에 비해 최고 21배까지 좋지 못함

하루에 100원, 한 달에 3000원 또는 한 가족(1만원) 이상을 신청해주시면 매월 15팩의 우유가 북녘 어린이들에게 전달됩니다.

평화교육훈련 (Peacebuilding)

개인, 집단적 갈등문제를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평화활동가양성과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아동 "집은 없지만, 장난감이 더 갖고 싶어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손에 될 수 있는 장난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한 기억이 남겨져서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

“샬롬 희망 학교”



새로운 경기 ▶ 긍정한 세상 2020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살롬 희망 학교

Korean class for foreign residents SHALOM Hope School

Mask, Hand Sanitizer Free for Migrant Workers!

매주 일요일 오후 2~4시 | Every Sunday 2~4pm

이주민연대 네不满민족 | 한누리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오남읍 양지리 410-2, 3층(410-2, Yangji-ri, Onam-eup) | 문의 Contact 031-571-2005

FREE

『2020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과 '한누리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샬롬 희망 학교">가 지난 5월 개강했습니다. 정규수업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남읍 양지리 '샬롬의 집' 교육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초급반까지의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김숙희, 노은주 두 분의 선생님이 수업을 맡고 있으며, '미래에듀사협(이사장 황승택)'의 도움으로 매월 1회의 '보드게임과 전래놀이' 시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수업뿐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갈등을 상담하고 서로 돋는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도움의 창구로 '샬롬의 집'을 매주 찾아옵니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문화체험 현장학습' 시간은, 다양한 문화관광지를 체험하고 휴식하며, 한국문화도 배우고 일터에서 생긴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기회가 되어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 5월에는 '롯데시네마 진접점'에서 이주민

문화운동가 '미노드 목탄(Minod Moktan)-한국명 미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영화 "안녕, 미누"를 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람했으며, 여름휴가기간을 맞이하여 8월에는 '강원도 고성-속초'로 바다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친목과 한국어학습을 위해 모이는 이주민들은 "샬롬 희망 학교"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인 ‘미누’ Minod Moktan 를 그리며

이 영(이삭) 신부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 성공회 사제

네팔의 한 청년은 88서울올림픽 때 남산타워 장면을 보고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1992년 한국 땅에 입국하게 됩니다. 식당과 봉제공장 등에서 일을 하던 중, 노래가 좋아 1999년 KBS ‘외국인 예능대회’에 출연해서 대상과 문화부장관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10여 년간 한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소위 3D업종에서 일하다가 2003년 정부의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강제 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농성투쟁이 시작되자, 미누 역시 자연스럽게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회 대성당의 농성장에서 2003년 11월 15일에 미누와 함께 다국적 밴드 ‘스탑크랙다운(Stop Crackdown)’이 결성되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의 노래가 한국사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누는 목장갑을 끼고 ‘월급날’, ‘손 무덤’ 등의 노래를 불렀고, 이주노동자방송국(MWTV)의 대표가 되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운동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를 반정부불온자로 낙인을 찍어 2009년 10월 23일에 표적단속을 하여 결국 미누를 추방시켰습니다. ‘강산에’와 함께 인권 휴먼콘서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에”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노동자 쓰러지지 않아
밟히고 또 밟혀도 다시 일어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노동자
작업복에도 아름다운 일꾼
피땀 흘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간
세상을 바꾸는 한국을 만드는 노동자”
- 스탑크랙다운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자!’ 중에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내 나이 21살. 식당부터 봉제공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옛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93년 여름날 주말에 군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게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아이고 고사리 같은 손 좀 봐. 여기 근처에서 일해?”라고 물어 본 할아버지의 안쓰러운 눈빛이 생각나네요. 정말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 고사리 같은 내 손은 기계 속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매우 차가운 바람 속에서 닳고 닳아 거칠고 굳은 살이 핀 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17년 4개월이란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으로 진열돼 있습니다.

- 2009년 10월 15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미노드 목탄 올림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난 미누는 네팔에서도 “네팔 스스로 네팔을 돋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수카와티’(축복받은 땅)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며 네팔 대지진 복구활동과 ‘나눔의 행복’이라는 네팔형 ‘아름다운 가게’, 한식당 ‘김치사랑’,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카페 ‘트립티’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 한국 여행자를 안내하고 네팔 전통 공예품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자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한국 핸드메이드 국제박람회에 초청되어 한국에 올 수 있었지만, 어이없게도 인천공항에서 출입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시 네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만 한국을 바라보고, 끝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액자 속에 놓여 있는 빨간 목장감을 쥐고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 미누를 위로하기 위해 ‘스탑크래다운’의 멤버들(소모두, 송명훈, 소띠아)이 네팔 현지에서 공연을 했고, 이때 미누는 공연의 감동에 “나 이제 죽어도 돼. 이제 한이 없어졌어.”라는 여운의 말을 남깁니다. 그토록 한국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못했던 미누. 그는 지난 2018년 9월 13일에 개최된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 영화 ‘안녕, 미누’가 개막작으로 선정되고 나서야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을 짧은 일정으로 다녀 간 미누.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한국을 다녀간 지 한 달 만에
2018년 10월 15일 심장마비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미누가 애타게 불렀던 노래가 귓가에 맵들고 있습니다.
‘미누’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 봅니다.
정겨운 이름이지만, 이제는 목이 메어 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애타게 불렀던 삶과 노래에 대해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땅에 처절하게 고통 받는 이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미누 동지!
그 누구보다 이주민들의 아픔과 차별을 끌어안고, 배제와 억압으로 갇힌 사슬을 끊고자 목 놓아 외쳤던 그 외마디를.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자유인을 꿈꾸던 그대를.
그대가 처음 바라 본 남산타워의 화려한 조명이 있지만, 그 아래 놓인 거대한 차별의 벽을 허물고자 했던 미누 동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사회 이주문화운동의 아이콘, <미누상>을 제정합니다!

이주운동(문화)의 인식 변화와 이주운동 당사자들을 격려하는 <미누상> 제정을 위해
이주 진영 단체와 미누에게 애정을 가진 동지들의 연대를 요청합니다.

[미누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영 신부

Tel. 010-7448-5611 | eotjdekd@hanmail.net | 후원계좌 농협 351-1144-1620-43

미누상은 한국사회 이주운동에 기여한 이주활동가에게 시상합니다.



We are neighbors 우리는 이웃입니다

KBFS
Korea Bangladesh Friendship Society



KOREA BANGLADESH FRIENDSHIP SOCIETY



1975년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대사관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상호 관계는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 피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싸우고 승리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0-1953년 한국전쟁 때 대부분의 건물, 교육 기관 및 공장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 없이 지내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는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데 몇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교육을 열심히 받고 일하며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전문가의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위치로 폭풍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국은 재난시 또는 재난 후 도움과 협력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방글라데시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큽니다. 한국 국제 협력단(KOICA)는 방글라데시 개발, 교육, 보건, 의료, 경제, 사회 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와 활동을

시작했고, 이것은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카 국제공항 현대화 사업을 한국의 유명한 회사인 삼성에 맡겼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전국 각지에서 회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저렴하고 충분한 인력이 있고, 한국 경제를 더욱 강력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한국은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Global Village'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실제로 같은 마을에 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해도 어떤 국가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80년대부터 한국으로 이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이래 방글라데시는 두 나라 정부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한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은 정직과 헌신으로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직항 비행편도 없지만 두 나라의 여행객은 끊임없이 서로의 나라를 여행합니다. 매년 여행, 비즈니스, 친구 사귀기 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옵니다.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 사람



들도 한국에 갑니다.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기로 유명한 두 나라의 사람들은 서로를 포옹하며 얼굴에 미소를 짓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KBFS(한국 방글라데시 친선 모임)는 2016년에 한국에서 일했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NGO입니다. 한국 남양주시의 'KMFS(Korea Migrants Friendship Solidarity) SHALOMHOUSE'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대표인 이정호 신부님의 감독하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습니다.

또한 외딴 지역의 기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료품, 의료 서비스, 의약품을 지원하고, 기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BFS와 '샬롬의 집'이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들은 'SAMS-92'(도하르 지역), 'BPS'(동기바리 지역)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정 경기도교육감님과 '샬롬의 집'의 지원 덕분에 KBFS와 ALO(로호정 지역)가 힘을 모아 외딴 모래섬 마을에 아름다운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빛을 선물해준 감동적인 일입니다.

KBFS와 '샬롬의 집'이 매년 진행한 '청

다말 국제협력캠프'는 한국의 청소년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연령과 직업이 다른 40여 명의 한국인들이 방글라데시에 방문해서, 외딴 지역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모든 운영진들이 모여 캠프 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토론합니다. 지역마다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을 벌이고 한국음식을 만들어 찾아온 손님들에게 대접합니다. 춤과 노래, 맛있는 음식의 흥겨운 마을잔치가 있는 '청다말 국제협력캠프'는 네 차례 열렸고 두 나라 사람들이 우정과 희망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다음 캠프를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 기난한 사람들은 더 힘이 듭니다. 경제가 마비되어 돈을 벌 수도, 식료품을 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사망한 시신이 방치되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이 중단되어, 한국처럼 훌륭한 온라인수업이 없는 방글라데시의 기난한 집 아이들은 최소한의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KBFS는 BPS와 함께 'Food for Life(생명의 양식)' 캠페인으로 매월 기난한 사람

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 가족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시신을 대신 수습하며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용품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하기 위해 외딴 지역의 무료학교도 다시 운영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의 후원자들이 '샬롬의 집'을 통해 보내는 후원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방글라데시 공군 수송기가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우정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다시 건강하게 빛날 것입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 사이에는 3,828km의 거대한 거리가 있지만, 두 나라 사람들의 열정, 사랑, 웃음, 눈물은 닮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입니다.

We are neighbors.

- 2020년 6월, KBFS로부터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다.



'살름의 집'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남양주지역의 이주민들에게 15회에 걸쳐 약 3만여 장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삼계탕, 선크림, 세제, 여성용품 등을 나누어주는 "살름 희망 나눔"을 진행 중입니다.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의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의료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에 그들이 잘 살고 편안하면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잘살고 평안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술사 등에서의 집단생활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상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사업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미등록 이주자들 역시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이기에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도 역시 안전합니다.

공장의 야간조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낮에 잠을 자느라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도 받으러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 기숙사에는 정기적으로 찾아가 마스크와 생필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에
그들이 잘 살고
편안하면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잘살고
평안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의 친구들', '엘엔피코스메틱(메디힐)', '남양주행복도시락(주)', '미래에듀사회적협동조합', '대한적십자사', '네스티안', '(주)오렌지', '더불어숲동산교회', '비케이로지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공회 초지교회', '(주)두근두근', '천마산데이케어', '봉우회' 이외에도 많은 단체와 개인이 물품을 지원해주셨고, 성공회 진접교회와 천주교 광릉성당 빈첸시오회, 민들레꽃지역아동센터, 모란공원 사람들 등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담보조, 마스크 나눔과 방역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평일 퇴근 후에도 봉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어 '샬롬의 집'과 이주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끈질긴 코로나19.

하지만 우리는 더 끈질긴 노력과 강한 의지로 '샬롬 회망 나눔'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끊임없이 나누며 새롭게 쑥 퇴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 덕분에.....

"샬롬 회망 나눔" 활동의 중심에는 이주노동자 자원봉사단인 "샬롬 회망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 주말에 정기적으로 모여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통역과 상

통 큰 나눔, 냉동생닭 6,000마리!



6월 29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공회 푸드뱅크가 제공한 6,000여 마리의 냉동생닭(9톤 분량)을 남양 주 곳곳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남읍 '살름의 집' 앞마당에서 시작된 나눔은 매 회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살름의 집' 대표 이정호 신부님 및 직원들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단체와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달의 크기에 따라 6~10마리씩 포장되어 나눠진 6,000마리의 생닭들이 치킨, 백숙, 삼계탕, 또는 닭볶음탕 같이 맛있는 음식이 되어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풍성한 여름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진접, 오남의 공단지역과 마석가구공단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들, 동·서·남·북의 희망케어, 민들레꽃지역아동센터, 두리원, 쉼터요양원, 싸릿골교회, 가나안교회, 사랑나눔터, 꿈터학교, 수동노인회, 더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 천마산데이케어, 사회적기업 일과나눔, 한국교육연구소, 사할린 영주 귀국 어르신들, 새터민, 그리고 노인회 등 많은 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두모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차량지원 해주신 남양주행복도시락(주), 창고와 차량을 지원하고 봉사하신 오리아빠 안광덕님, 쌍용자동차 김대영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후원해주신 업체 대표님과 발 빠른 나눔 되도록 애쓰신 성공회 푸드뱅크 관계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절반이 뭐예요?”

자원활동가 노은주 | 더포스수학학원 부원장

“선생님, 절반이 뭐예요?”

저와 같이 수학 공부를 하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절반의 뜻과 1/2을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정호 신부님을 통해 알게 된 이 친구와 언니는 한국인 아빠와 다른 나라에서 온 엄마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입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단어와 겹문장의 뜻을 묻는 일이 많습니다. 언니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작년 11월의 고등학교 입학원서 작성이나 온라인 수업의 학부모 공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확인을 부탁하는 엄마를 보면서, 예전에 본 공익광고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우리글이 서툰 엄마를 위해 날마다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자랍니다.” 지금은 알림장 대신 온라인 알림장 앱이 되었을 뿐 10년 전 민지 어머니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문화배경의 아이들은 어휘나 문화적 이해, 배경지식이 필요한 학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생활 적응의 시작은 한글, 특히 학습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인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은 많지만 정작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한글 교실은 없습니다. 학교생활에서 곤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학습언어를 포함한 한글교육은 꼭 필요하고, 저마다의 꿈을 키우기 위한 역량을 기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업이나 민간의 장학재단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프로그램들이 간혹 있습니다. ‘샬롬의 집’에서도 최근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 아이의 장학금 신청 과정을 도왔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와 다문화가정 증빙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각각 1,000자 내외의 분량을 작성해야 했고, 주민자치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기 소개서를 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름도 생소한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면,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도 조금 더 간략하고 알기 쉽게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매체와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화는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두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오히려 인터넷과 미디어 때문에 후퇴된 세계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글을 잘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알림장 앱으로 전달된 내용을 학부모들이 다 이해했다고 여기고,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도는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시하는 것들은 모두 일방적인 무관심과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문화배경을 가진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제도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지레 포기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주는 것은 물론, 따뜻한 햇볕도 듬뿍 쬐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우리 사회와, 나아가 세상의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서서 다양한 꿈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돋는 ‘샬롬의 집’ 같은 이주민 지원 단체에도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배경을 가진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제도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지레 포기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KBFS 부회장

자한길 알럼 Jahangir MD Alam

이주민이자 노동자인 “자한길 알럼”씨는 문화기획자로서 mdf(마석 동네 페스티벌)와 서남아시아설날축제를 기획하고, 청다말 국제협력캠프를 비롯하여 “샬롬 희망 나눔” 활동과 청다말 국제협력캠프 등 ‘샬롬의 집’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함께해 온 소중한 친구입니다. KBFS의 부회장인 알럼씨가 한국에서 살아온 23년의 이야기이자, 이 땅의 수많은 이주민 노동자 “알럼들”的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 “알럼의 고향”이 가야금 연주가 정민아씨의 작사/작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마석가구공단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등 남양주 마석 구석구석을 함께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을 사랑하는 알럼 씨의,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엮어 펼쳐내 주신 ‘정민아’ 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럼의 고향”

정민아 작사/작곡/편곡 with SHALOMHOUSE

나는 자한길 알럼, 스물세 살에 집 떠나
어느덧 이곳에서 스물세 해가 지났네
나는 자한길 알럼, 대학 때 집 떠나
어느덧 이곳에서 지내온 날이 더 오래됐네

물에 잠긴 고향을 뒤로 하고
여섯 형제와 부모님을 위해 떠난 길
가구공장에서 톱밥 먹으며 육도 먹으며
친구들은 다치고 죽고 쫓겨나

매캐한 공장의 밤에도 매일 달은 뜨고
보잘것없는 청춘에도 사랑은 찾아오고
완잣집의 겨울은 매섭고 시리지만
우리의 반짝이는 마음을 가릴 순 없었네

우리를 위한 축제와 연극을 만들고
먼 고향의 모래섬에 학교를 만들었네
있지만 없는 것 같았던 나의 삶은
계속되어 선명하게 남았네

나의 청춘이 오롯이 담긴 곳,
우리의 젊은 날을 간직한, 내가 사랑하는 곳
고향에 가도 그리운, 지금의 내 고향
이제 사라져가는 마석의 골목
나의 고향



“알럼의 고향” 노래와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YouTube에서
“알럼의 고향”을 검색하세요!



샬롬 희망 봉사단

우마르 임란 Umar Imran

샬롬 희망 나눔 캠페인과, 한국어교실 등 '샬롬의 집' 활동의 중심에는 "샬롬 희망 봉사단 (Shalom Hope Volunteers)"이 있습니다. 샬롬의 집과 인연을 맺은 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마르 임란" 씨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우마르 임란입니다. 한국 나 이로 41세이고 4남 5녀 중 막내입니다. 지금은 남양주 진접에서 동갑인 한국인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국음식 중에서는 청국장, 아귀찜, 생선구이를 좋아해요. 물론 비리아니, 난, 로티 같은 서남아시아 음식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재료들이 비싸서 자주 해먹지는 못합니다.

한국에는 언제 어떻게 오셨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2007년에 처음 한국에 왔는데, 세종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접에서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는 예전엔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었는데, 요즘엔 일거리도 줄

었고, 주변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샬롬의 집'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3개월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중에 한 명이었던 방글라데시에서 온 '샐림'씨와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샐림'의 권유로 그때부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샬롬의 집'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처음엔 마스크 나눔으로 시작해서, 요즘은 아프거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 친구들 상담을 해주고 통역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결혼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혼자서 했는데, '샬롬의 집'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과 '샬롬의 집'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가장 아쉬워요. 직장이나 사회나 밖에서 아직까지 차별이 많아요. 마스크나 생필품을 나눠 주는 것도 물론 고맙지만, 좀 더 이주노동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직접 도움이 되는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추석, 설날 같은 명절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나라 명절을 즐길 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13년째 살아오며 귀화를 준비 중인 우마르씨는 자신보다 이웃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 '샬롬의 집'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와 직장, 제도의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원한다는 그의 이야기를 새겨듣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민들도 평화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항상 돌아봐주신 든든한 지원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느님의 평화 안에서
평안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남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온
살풀의 주
도시를 위해 30년을 응원합니다 -
2019. 6. 1
서울시장 박원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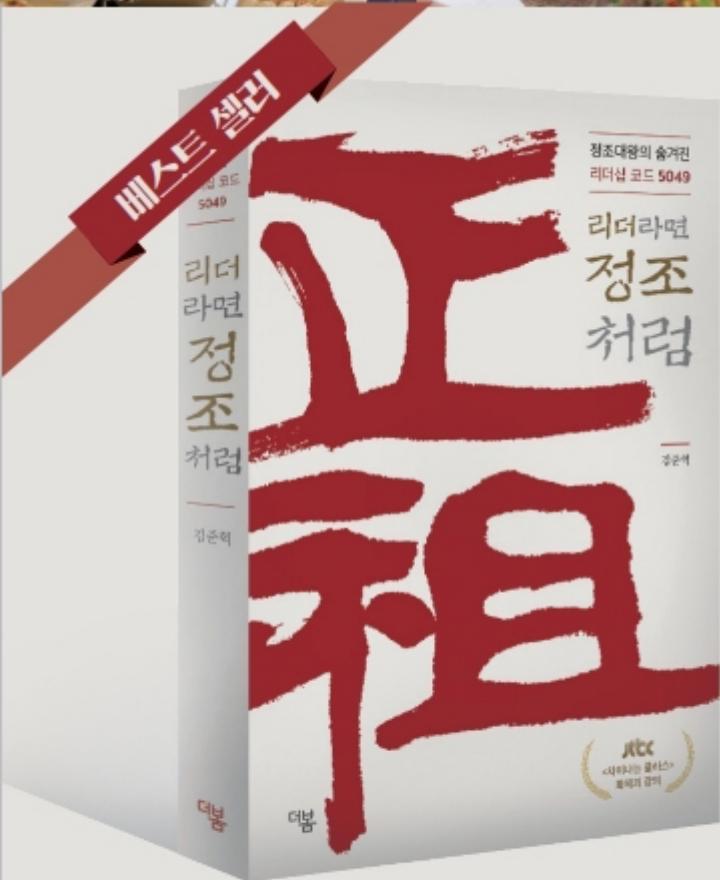
행복도시락

마음을 전합니다. 행복을 나눕니다!

“남양주행복도시락”은 결식아동 무료급식,
방글라데시 행복 도시락 지원 등을 통해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과 함께 합니다.

각종 단체 행사식 | 웨딩피로연 | 케이터링서비스
결식아동 무료급식 | 방글라데시 행복도시락 지원

www.nyjhappydosirak.org
happydosirakny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영원한 룰모델, 개혁군주 정조의 특별한 리더십과 정치적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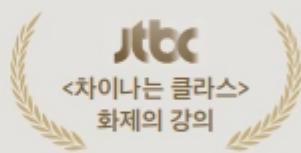
50발의 화살 중 49발을 명중시키고 마지막 1발은 허공으로 쏜 신궁(神弓) 정조의 일화는 유명하다. 정조는 왜 1발을 비워둔 걸까. 여기에 '정조의 리더십 코드 5049'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책 『리더라면 정조처럼』은 난관을 헤쳐 나가는 정조의 리더십을 49가지 정책과 실천 사례를 통해 재밌게 풀어나간다. 이 책은 국가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낸 정조의 리더십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조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겠다.”

-문재인, 19대 대선 당시 마지막 TV연설에서

리더라면 정조처럼

신국판 | 368쪽 | 올컬러 | 값 18,000원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을 후원해주신 분들

청다말 시즌4 국제협력캠프 & 2020년 1월~6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이주노동자와 소외된 이웃의
교육·문화·복지사업에 활용됩니다.

| 정기후원 |

가경숙	강규영	강면모	강미정	강소라	고동희	권문경	권영신	권용식	김건동	김경문	김경숙	김경자	김광숙	김나영
김명숙	김명자	김문덕	김미숙	김미애	김선화	김양희	김영식	김영자	김은옥	김정문	김정옥	김지영	김태근	김현미
김현수	김호성	김환영	남궁민	남궁욱	남이본	노은경	노은주	라원식	문병선	문재환	박영재	박요한	박용식	박은경
박정미	박종필	박준기	박태영	반재순	배령	배웅섭	백희정	서덕용	색알마문	손동국	손영연	손인자	손태준	송영선
송웅석	신경미	신현준	심장수	심향희	안소민	안재민	안재현	안충환	양기석	여봉례	오경식	왕신영	유시진	유은열
유호진	윤광영	윤지은	윤진규	이경동	이구	이금태	이돈화	이동희	이민애	이복순	이상진	이성금	이승	이승후
이연희	이영혜	이예빈	이옥희	이웅세	이재용	이재천	이재현	이정연	이정한	이정호	이준	이자선	이지원	이혜연
이희성	임병순	임선일	임효정	장남규	장순미	장순자	전남진	전동준	전병희	전상섭	전영미	정경자	정광웅	정복련
정성택	정연진	정재숙	조강현	조남호	조문서	조성상	조소영	지은영	차규근	최광섭	최용문	최안해	최진우	최현경
하술임	한경자	한상현	한영목	한익주	한장식	합동수	합연효	허문경	홍경숙	홍원기	한영목	황승택	합연효	

| 특별후원(개인) |

강소라	고윤정	곽동진	권용식	권혜진	김경호	김명호	김민수	김상필	김상희	김선경	김선희	김용원	김인수	
김재권	김정임	김종훈	김찬일	김태민	김화영	노은주	최승일	명기태	문병선	민진혜	박경호	박상현	박석균	박소원
박영재	박옥순	박현균	박희중	방민환	배령	백승호	변원정	변정환	서동원	서상철	서춘배	서효영	손철훈	송요훈
심상진	안정만	안창규	엄재영	오경식	유시진	유은열	유진룡	유희윤	유희윤	윤순옥	이경수	이금재	이덕근	이미경
이미림	이범생	이선덕	이원욱	이재학	이정민	이제희	이중식	이해숙	장공자	장근환	장기환	전상섭	정연진	정종택
조성민	조순형	차규근	최양순	최용기	최은식	최주현	최준호	한건희	한상현	한영수	합승영	허광수	허문경	황다운
황연희	최신원													

| 특별후원(단체 등) |

경기도교육청 | 남부희망케어 | 동부희망케어 | 노회찬재단 | 류마리스내과 | 리드앤톤영어 | 매그너스의료재단 | 미래에듀사회적협동조합 | 성지어린이집 | 씨원텍
 별나라꿈길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스포츠교육 |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자축구연맹 | 협암건설산업㈜ | 씨여기스터디 | 씨비둘기식탁 | 반포소망교회
대한성공회 | 이경호 주교 | 강남교회 | 대학로교회 | 도봉교회 | 송탄교회 | 제자교회

| 물품후원 |

(재)미연합감리교회세계선교부유지재단 | 강종석 |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 남양주행복도시락 | 대한적십자사 | 더불어숲동산교회 | 미래에듀사회적협동조합
 박진숙 | 봉우회 | 사회적기업 | 일과 나눔 서울꽃동네 사랑의 집 | 성공회 초지교회 | 성공회 푸드뱅크 | 수동노인회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옐엔피코스메틱(메디힐)
 씨네스티안 | 씨두근두근 | 씨오렌지 | 진접 문화의 집 | 천마산데이케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희망의 친구들

후원을 하고 누락된 분들은 '샬롬의 집'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출내역 |

청다말 국제협력캠프	66,626,000 원	임대료 및 관리비	15,922,000 원
귀환이주민 지원사업	38,120,000 원	인건비	7,800,000 원
체류이주민 지원사업	1,077,000 원	일반운영비	4,433,369 원
청소년교육 지원사업	2,100,000 원	CMS수수료	281,055 원
사회적참사 연대 사업(세월호6주기)	618,000 원		합계 : 136,977,924 원

후원해주신 분들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후원약정서

SHALOMHOUSE Sponsorship Agreement

후원자이름		주민번호	*CMS 등록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 * * * * *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	일반전화 :	
전자우편	@		
CMS 정기후원 (매월 지정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므로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예금주
희망이체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일) * 희망이체일에 미납시 재출금 됩니다.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주소, 기타 후원약정서 기재상의 개인정보
- (수집·이용목적) 개인식별정보, 정보 전달, CMS 후원약정 ■ (보유·이용기간) 관계 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5년 이상)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사자 확인이 불가 및 후원약정에 대해 진행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의 기재한 방법대로 샬롬의 집 CMS 후원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자 _____ (서명)

* 후원하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31-571-2005 | 【팩스접수】 0504-336-3969 | 【E-mail】 nyjshalomhouse@gmail.com

* 후원약정서 작성후 Fax 또는 사진을 찍어서 E-mail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이주노동자와 소외된 이웃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활용됩니다.

후원계좌 : 농협 204074-51-023539 | 샬롬의집

코로나19! “샬롬의 집”과 함께 이겨냅시다!

The Anglican Migrants Solidarity SHALOMHOUSE

성공회 선교정신

성공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교 공동체로서,

01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02 새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 주고, 양육합니다.

03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04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05 창조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너의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네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

- 레위기 19장 33, 34절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은?

- 1990. '평화 Shalom'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살도록 돕는 지원단체로 태동
- 2005.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설립·운영.
성공회의 대지기부로 설립된 전국 최초의 이주노동자지원센터
- 2006. '한울타리지역아동센터' 이주배경아동과 함께 하는 통합지역아동센터 설립
- 2007. 행복을나누는도시락(現 남양주행복도시락) 설립으로 결식아동무료급식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 2016. "청다말, 한국-방글라데시 국제협력캠프" 시즌1 시작
- 2019.6.~ 새로운 곳에서 다시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주요 사업

- 청다말 국제협력캠프
- 귀환이주민 지원사업
- 체류이주민 지원사업
- 청소년교육 지원사업
- 사회적참사 연대사업
- 모임장소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4, 명승빌딩 3/4층

Tel. 031-571-2005 | Fax. 0504-336-3969 | f kmfsSHALOMHOUSE | Email nyjshalomhouse@gmail.com

후원계좌 : 농협 204074-51-023539 | 샬롬의집



이주민연대
샬롬의집